

CONTENTS

자	1
집	2 3
캘러리	4 5
스초이스	6
집	7
로커스	8 9
채 안목소개	10



신새와 무늬



자른 토마



신새와

리꽃과 사람들	11
---------------	----



하늘을 날

010 10월 우리꽃은	12 13
--------------------	---------

드리프트	14
------------	----



하늘을 날의 가을꽃모습

고	15
---------	----

리꽃따라잡기	16
--------------	----

이들과비림과꽃의바다

그리내는 화성지

아름다운 면사포, 천사들의 정원입니다.

일조화선자원에유한공사
 총경리 왕 군 국
 (일조시 대만기업인협회 사무국장)



화선자는 우리꽃에서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국연지집 인이다. 2009년 5월 15일 정식 오픈한 경관 식물원으로 중국 산둥성 일조시의 큰 호수변에 위치하고 있다. 일조시는 2006년 UN이 선정한 살기 좋은 도시다.

해변의 길이가 부산의 해운대 10개를 붙여둔 것과 같은 64km의 매우 아름다운 해변도시다.

2006년부터 식물원 조성이 시작되어 정식오픈 하기까지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웨딩촬영전문회사를 영입의 핵심고객으로 선정, 집중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성장하고 있다. 이는 가장 저렴한 영업비용과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화선자의 경관과 꽃의 바다에 묻혀 촬영하는 사진은 이제 많은 전문회사들의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신문, TV 등은 물론 결혼시장의 대형 사진으로도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1호 잡에 이어 2010년 9월 현재 25개 회사와 계약을 마쳐 매일 수십대의 버스가 예비부부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제는 웨딩아와촬영 모습이 일반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웨딩촬영회사는 자신들의 버스 혹은 대형촬영차 등에도 우리의 식물원인 화선자의 이미지와 화선자의 협력업체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우리화선자와 계약한 웨딩촬영회사들은 현재 평균 25%의 성장은 기본이 되고 그 매출의 성장은 화선자와 계약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선자는 전국의 시, 현 등에 독점계약을 통한 영업을 하고 있고 철저한 약속을 이행 하고 있다. 또 일정한 선정기준이 있어 서로 잘될 수 있는 회사와 파트너가 된다. 따라서 많은 계약금을 제시하는 업체라 해서 계약하지 않고 이미 기 계약된 협력업체와의 신용은 철저히 지켜 그들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다 보니 기존의 선정된 도시의 다른 웨딩촬영업체간의 물밑접촉과 기존업체보다 10배의 계약금을 제시하는 웃지 못할 유병세를 치르고 있다.

특히 1년 단위의 회원제 계약으로 인해 매년 계약을 경신해야 유지되는데 현재, 제계약율이 100%이란 정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한다. 우리는 제계약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0%이상은 올려 받지 않는다. 이런 신뢰로 우리 화선자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경제위기가 오면서 산동성의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임금체불, 혹은 경영자가 야만도주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 한국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화선자의 좋은 경관과 신뢰가 협력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다.

우리 일조 화선자의 모든 임직원과 주변의 농민들까지 회사에 대한 긍지가 높아지고 있다.

화선자의 경영이념인 "창조적인 생명산업을 통한 인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치를 세워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영입이익의 절대적인 개선에 있다.

또, 현재 많은 주변 회사들의 투자재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기본근간인 경관식물원의 원형은 유지함은 물론이고 배지와 휴식을 겸하는 사업으로의 확장에 골고루 있다.

특히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부문에 서부터 중국 내 조정시장과 원예용품의 유통, 화웨이산업까지 점차 그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2016년 화선자 설립 10 주년이 되며 다른 성시에 최소 1곳 이상의 새로운 식물원이 세워질 것이고 중국 전역에 꽃과 경관과 문화, 그리고 인간 삶의 깊은 의미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기업, 특히 식물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국과 많은 고객들도 하얀 면사포를 쓴 아름다운 사람들과 하늘과 바다와 꽃이 그리내는 우리 화선자로 초대한다.

가을 지금 바로 효과를 원한다!!

가로화단, 거리화분, 교통섬...

삼색조팝, 황금조팝

삼색, 황금조팝은 잎의 색감이 좋고 또한 가을 단풍이 일품이기 때문에 꽃이 없더라도 좋은 가을소재이다. 삼색조팝은 단풍이 완전히 붉게 물들고 황금조팝은 황금색 잎에 붉게 스며들어 또다른 느낌을 가져다준다. 거리화분, 가로수 아래에 식재하면 좋고 교통섬 등에도 다른 가을식물과 어울려 심거나 라인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그 외에 흰꽃조팝, 분홍조팝, 붉은까실조팝 등도 지금 식재하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관목이다. (규격 H0.3)



아스타

가을의 대표적인 화종으로 지금 어디에 심어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소재이다. 키에 따라서 왜성종과 고성종이 있는데 개화기가 차이가 있어 (왜성종 9~10월 / 고성종 10~11월) 그 시기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고성종의 경우 식재 당해연도에는 제한된 구역에서 재배되어졌기 때문에 키가 40~50cm 정도 된다고 보면된다. (규격 3치포트, 식생매트, 화분)



실유카 브라이트에피

상록성이며 무늬가 좋은 실유카. 직립성이며 초형이 안정적이어서 거리화분의 중앙부에 심고 주변을 기차의 식물로 둘러싸면 좋다. 이 외에도 포인트식물로 활용하거나 열식하면 좋고 특히 준공이 늦기를 이후인 아파트 시공현장에 실유카와 더불어 상록성의 포인트식물로 활용하면 매우 좋다. (규격 H0.4)



개량감국

화색이 다양한 개량종 감국으로 가을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수종으로 원래 여름에 1차개화를 하고 가을에 2차개화(9~10월)를 하는데 커밍을 통해서 개화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규격 3치포트)



줄사철 미카엘라/트리칼라

무늬종 줄사철로 잎의 색감과 질감이 매우 고급스럽고 어떤꽃보다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화분의 가장자리 식재에 좋고 가로화단, 가로수아래 하부식재용으로 안정맞춤이다. (규격 =0.2~0.3)



가우라

다른 말이 필요없을정도로 이제는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대표적인 장기개화종 수종으로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특히 꽃이 오래가고 화려하기 때문에 행사용으로 제격이고 구미에 맞게 색상(하양, 분홍, 빨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꽃에서 개발한 품종인 가우라 베이비는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어 더욱 안정맞춤인 품종이다. (규격 3치포트, 화분, 식생매트)



노랑속근코스모스, 애기노랑금계국

2품종 모두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개화하는 품종으로 커밍으로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가로화단, 교통섬 등 어디에 적용 해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규격 3치포트, 식생매트)



황금리시마키아

지면에 피복을 원할 때 좋은 품종으로 황금색 잎의 색감이 좋아 가장자리에 적용하는 등 라인식물로 활용하면 좋고 주변을 밝게해주어 다른 식물의 배색식물로 제격이다. (규격 식생매트)



속근꽃향유

코리모양의 자주색의 꽃이 아름다운 가을 꽃으로 키가 1m까지 자라고 꽃이 매우 큰 수종이다. 아스타 고성종과 마찬가지로 이번 가을에 식재하면 초장은 약 30~50cm 정도에서 꽃을 피우고 내년에는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규격 3치포트, 식생매트)



하늘응답

10월에 꽃을 피워 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 꽃을 유지하는 키 작은 응답으로 교통섬등에 다른 식물과 어울려 앞쪽으로 포인트로 식재해주면 늦게까지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다른 식물도 대부분 바로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큰 규모로 식재해야겠지만 하늘응답의 경우 포기 빠르게 커지는 식물 아니므로 반드시 화분 또는 식생매트에 재배된 큰 규모를 심어야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규격 식생매트)



억새 파랑새

키가 작은 억새로 이삭과 아담한 초형이 어떤 다른 꽃보다도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고급 억새품종. 거리화분에 적용해도 좋고 거리화단에 군식 또는 포인트 식물로 적용해도 좋다. (규격 17~20분얼-포기)



억새 모닝라이트

잎이 얇고 무늬가 들어가 있는 억새로 큰 포기나 포인트 식재거나 열식하면 좋다. 특히 억새 파랑새 등 다른 억새 종류와 적절하게 혼합하여 식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규격 17~20분얼-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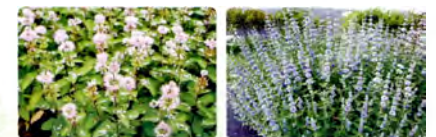
큰뽕의비를 만추

초형이 아름다운 직립형 세덤류로 가을 적색으로 물드는 꽃이 매우 좋아 화분이나 화단에 식재하면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수종이다. 꽃이 진후에도 꽃잎이 적색을 띄기 때문에 그 느낌을 마치 계속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규격 화분)



충꽃

가을의 대표적인 꽃종의 하나가 충꽃이다. 보라색 충충이 피는 꽃과 향기는 나비들이 항상 주변을 맴돌게한다. 거기에 더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분홍충충은 더욱 고급스러움을 더하여 보라색 충꽃과 같이 어울려 식재해도 좋다. (규격 3치포트)



◀아스타 화분모종

플라카

Carex flacca
사초과. ☀️ 🌧️



20~30cm정도로 자라며 카네이션 잎을 닮은 파란색의 사초이다. 적응범위가 매우 넓어 어디에도 잘 적응한다. 포복에 의한 줄기 생장을 하지만 밀도가 아주 높게 천천히 퍼진다. 질감이 섬세해 지피식물로도 매우 좋다. 사구 등 내건조성이 강하고 산성과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적응해 내염성도 강하다. 물빠짐이 극히 불량한 지역의 건조에서는 길이 생장이 나쁘다.

줄사철 미카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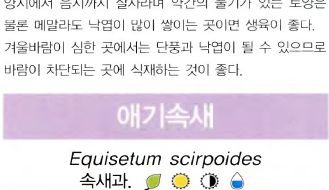
Euonymus fortunei 'Michaela'
노박영굴과. 🌿 ☀️ 🌧️ 🌧️



줄사철 품종으로 겨울도 푸른녹색을 유지한다. 기근이 있어 백면 부착형으로 자란다. 다른 줄사철에 비해 생육속도가 빠른 편이다. 잎색이 진하며 노란색 무늬가 있어 더욱 돋보인다. 내한성이 강해 서울에서도 푸른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양지에서 음지까지 잘자라며 약간의 물기가 있는 토양은 물론 메달라도 낙엽이 많이 쌓이는 곳이면 생육이 좋다. 겨울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단풍과 낙엽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이 차단되는 곳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애기속새

Equisetum scirpoides
속새과. 🌿 ☀️ 🌧️ 🌧️





키가 15~20cm, 두께 2mm로 다른 속새에 비해 크기가 아주 작으며 밀도가 매우 높게 자란다. 겨울 청색의 상록성으로 음지의 종은 디스플레이용 식물이다. 잎은 퇴화하였으나 대나무와 같은 느낌의 마디는 간결한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음지는 물론 양지에서조차 잘자라며 습기를 매우 좋아한다. 특별한 관리 없이도 생육이 좋다. 삼목은 물론 물에 그냥 띄워도 뿌리를 잘내린다.

산수국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범의귀과. ☀️ 🌧️



함엽수림대의 반음지식물로 고급스러운 화색, 음양지 모두 가능한 관목성 식물이다. 키는 80cm에서 1m까지 자라며 반음지에서 양지까지 모두 적응을 잘한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이 효과적이다. 산수국은 내한성이 강하지만 수국은 품종에 따라 내한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선택에 주의한다. 내한성이 약한 품종은 겨울철 보온에 주의하고 줄기자르기를 적절하게 한다.

아스타 발라드

Aster novi-belgii 'Marie Ballard'
국화과. ☀️



키가 큰 아스타 종류로 개화가 늦다. 하지만 연보라색의 화려한 꽃색은 물론 가을을 대표하는 화종이다. 종으로 대체로 강건하지만 키가 150cm 이상으로 너무 커 쓰러지기 쉬우므로 6월 에 한번 커팅을 해주는 게 좋다. 흰가루병에 약한 면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대면적 식재를 하면 가을 어떤 풍경보다도 고급스럽고 화려함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골프장의 한 구간을 이들 종으로 연출한다면 최고의 효과가 예상된다.

왕상록패랭이 카멜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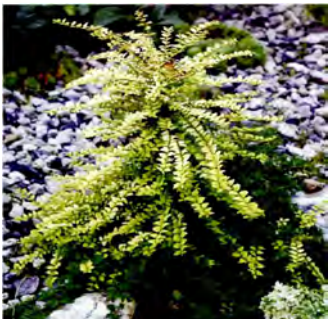
Dianthus plumarius 'Chameleon'
석죽과. 🌿 ☀️ 🌧️



주로 5~6월에 꽃이 피며, 키는 10~15cm정도로 자란다. 개화 초기에는 비교적 진한 색의 꽃이 피나 저가면서 꽃색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건조에 매우 강하고 상록성으로 우리나라의 건조기후에 알맞다. 혼합식재시 라 라인에 적용하면 화상감이 있는 정원을 연출가능하며 여름 장마 후에 다습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배수가 영리한 곳에 식재한다.

로니세라

Lonicera nitida 'Golden Bargin'
인동과. ☀️ 🌿



관목으로 자라며 50~60cm의 초장을 갖는다. 녹색과 황금색 그리고 금테 품종이 있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양지, 반음지에서 부식질이 많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상록성의 로니세라는 겨울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낙엽될 수 있다.

비단동자

Lychnis viscaria
석죽과. ☀️



6~7월에 진분홍색의 꽃이 피며, 50~60cm까지 자란다. 무리를 이루어 삼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간혹 여름 건조가 심한 경우 잎이 낙엽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나리, 리아트리스 등과 같은 품을 형성하는 식물과 혼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에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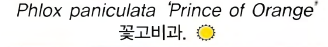
Echinacea purpurea
국화과. ☀️



건조한 곳에도 약간의 음지에도 잘 자란다. 다양한 화색, 왜성종, 고성종 등 품종 선택의 폭이 넓다. 고급정원, 도로기, 골프장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꽃이 저도 아름다운 이삭을 가져 절화용으로도 좋다.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에서의 재배는 매우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혼합식재는 물론 대면적 식재에도 좋다. 꽃이 1차 시들기 시작하면 꽃을 제거하여 2차, 3차 개화를 유도하면 장기간 개화한다.

후룩스 오렌지

Phlox paniculata 'Prince of Orange'
꽃고비과. ☀️





주황색의 꽃이 피는 후룩스 품종으로 키는 70~80cm정도로 자란다. 흰가루병에 내병성이 있고 장기 개화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6월부터 서리가 내리는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개화한다. 대면적 후룩스원이나 혼합식재 등에 이용하면 항상 꽃이 있는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후룩스는 장기개화형으로 화려한 정원의 필수 품목이다. 꽃이 오래가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속근꽃향유

Elsholtzia splendens
굴불과. ☀️



무늬병꽃나무

Weigela florida 'Variegata'
인동과. ☀️ 🌧️



인동과의 낙엽 활엽관목이다. 땅에서 부터 많은 줄기가 나와 큰 포기를 이루며, 꽃은 모양이 병과 같아 이색적이다. 내용성과 내한성이 강하여 햇볕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며 공해에 강하여 도시 조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증식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나온 새 가지를 이용하여 삽목으로 증식한다.

개랑감국

Chrysanthemum indicum 'Bridal Robe'
국화과. ☀️



초장은 주로 70~80cm정도로 자라지만 생육 조건에 따라 1m이상까지 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6월경 한번 커팅을 해주면 강건하게 키울 수 있다. 개랑감국은 일반적인 국화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화색이 다양하고 주로 9~10월에 꽃이 피지만, 6월 말부터 개화를 시작하는 종류를 비롯 아주 다양한 생활형을 가진다.

코드그라스

Spartina pectinata
벼과. ☀️ 🌧️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은 지역을 좋아하여 수변의 생태습지에 좋다. 키는 120~150cm까지 자란다. 주로 무늬종을 사용하여 대형의 포기를 형성한다. 아치형을 이루는 긴잎의 아름다운 선이 핵심이다. 침입성이 강해 기타식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대형포기를 이루는 키 큰 세덤 큰평의비름 만추

▶건조지, 옥상정원, ARI가든, 혼합식재 어디에도 좋습니다.

용하며 식물의 특성을 본
결과 포기로 번식을 하며
쓰러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양 적응력도 좋
아 일반지 식재에도 적용
가능해 지금에는 혼합식
재, 라인식재 등 거의 모든
식재현장에서 사용 한다.
옥상 정원의 소재로 사용
할때에는 키 작은 세덤류
를 기초로 피복하고 큰평
의비름 만추, 노란줄무늬
평의비름처럼 키가 있는 식물들 중간 중간 구역을 정해 식재해주면 입체감을 줄 수
있다.



▲꽃이 붉게 변하고 있는 모습

세덤은 형태적으로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큰평의비름 만추는 식엽의 대형
포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세덤류의 주요 사용처인 옥상정원, 건조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키는 40~60cm 정도로 세덤류중에는 큰 종류에 속한다. 줄기가 강건해 잘 쓰러
지지 않고 건조지 뿐만 아니라 일반지, 반그늘까지 생육이 좋아 식재의 적용 폭이
넓다. 또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일반 큰평의비름에 비해 붉은색의 꽃이 크고 둥근 형
태를 띄며 이것이 가을까지 핀다. 특히 꽃이 여름에 하얗게 꽃봉오리가 맺히고 가을
로 가면서 마치 단풍이 들 듯이 붉게 변해가는 모습이 일품이다.

처음에 주로 현장에 적용할때는 주로 암석원에서 사용했는데 첫해에는 크게 눈에
띄는 식물은 아니지만 2~3년 경과후 포기가 커지고 가지가 여러개 나오며 형태도
원추형으로 수형이 좋고 꽃이 전체 포인트 식물로서 좋았다. 암석원에서 1~2년 직

지피식물의 새로운 발견

클로버

▶특히 무늬종이 좋습니다.



▲황금잎클로버

보개풀이라고도 불리는 클로
버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식물이다. 유럽 원
산의 다년생 초본으로 전국 각지의 잔디밭이나 산자락의 풀밭에서 자란다. 목초로
심던 것이 번지나와 귀화식물로 야생화 되었다. 작은 잎이 4개 달린 네잎클로버는
이것을 찾은 사람에게 행운이 깃들인다는 전설이 있다. 줄기는 옆으로 자라다가 마
디에서 뿌리가 내리며 비스듬히 선다. 잎에 흰색의 무늬가 나타나기도 하며 6~7월
줄기 끝에 흰색 꽃이 공처럼 원형으로 달린다. 번식력이 너무 빨라 잡초처럼 인식되
어 특히 잔디밭이나 산소의 클로버는 골치아픈 잡초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피력이
좋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웃 중국의 경우 가로화단
에 클로버를 조경용 지피식물로 식재해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하는 클로버는 무늬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경용으로 유용
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소재이다. 적엽클로버는 포복성으로 잎이 흑갈색인 점이 특색
이고 황금잎클로버의 경우 포기 형상형으로 잡초성이 아니다. 이러한 무늬종의 경
우 혼합식재는 물론 잎의 색깔이 좋기 때문에 분양을 연출할 때 유리하다. 생육이
강건해 어디에서도 잘 자라지만 물기가 많은 양지에서 생육이 좋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나무아래 반음지에서도 피복식물로 이용하면 빠른 피복과 더불어 다
른 식물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특히 적엽과 황금잎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면 잎의
색감을 통해서 그 효과를 메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적엽클로버의 경우 행운의 네
잎이 최소 30%정도 되므로 행운 축제의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번식은 포기나누기와 심목을 통해서 대량증식이 가능하며 작은 규격의 포트보다
는 매트로 생산하는 것이 관리면이나 현장에 적용했을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유리하다. 🍷

▲적엽클로버

그라스는 조경용 소재로 갈수록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선형의 잎이 주요 감상 포인트로 쓰이는 품목군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변화를 주는
그라스는 정원에 새로운 면이 나타나게 하며 겨울경관에 수직적으로 존재감을 크게 부가시킨다. 품위있는 초형과 호리호리한 화서와 줄기,
색감있는 잎 등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2010년 새롭게 소개하였던 그라스를 한자리에 모아 현장적용에 다시 한번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편집자주 -

2010 그라스 “그라스를 알면 새로운 트렌드가 보입니다.”

브론즈색의 꽃이 아름다운 새 블루마운틴

약간의 축축한 숲
을 좋아한다.
활엽수 가장자리
등의 반음지에 좋
고 아파트 등의 약
간 습하고 반그늘
진 곳에 심으면 최상이다. 블루문의 엄색과 가을의
브론즈색의 꽃이 아름다워 정원의 혼합식재 혹은
기타 식물의 배경식물로 활용하면 좋다.



음지의 좋은 소재 왕무늬대사초

대사초는 일반적으
로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에
도 강하여 소나무
정원의 건조지에도
좋다. 흰줄, 노란줄
무늬가 있어 이듬만으로도 문양연출이 가능하고
침입성이 없어 안전하다. 건조 양지의 경우 간혹
늦어봄에 잎의 질감이 나빠지면 커팅 후 영양재로
살포하면 아름다운 깨끗한 잎을 얻을 수 있다.



선과 무늬가 아름다운 무늬몰리니아

치밀한 포기를 이
루는 대표적인 선
의 식물로 양지 혹
은 약간의 음지에
좋다.
대체로 약간의 축
축한 토양을 좋아하고 선명한 노란줄무늬가 매우
아름답다.



카네이션을 닮은 푸른잎사초 플락카



카네이션과 같은
파당색의 잎이 고
급스럽고 질감이
섬세해 지피식물
로 매우 좋다.
포복에 의한 줄기

생장을 하지만 밑도가 아주 높게 친천히 퍼진다.
대진조성이 강하고 산성과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적응해 내염성도 강하다.

ARI가든용, 옥상용, 군식용으로 좋은 좀새풀



고습도치 같은 깔
깔한 풀은 군식하
면 좋다. 녹색의
아름다운 양잔디
의 질감을 가졌고
꽃이 피면 가을의

햇살처럼 눈부시다. 사늘한 계절을 좋아하고 여름
고온, 건조에 의한 피해는 가을이 되면 회복된다.

하얀 무늬, 진한 녹색의 조화 프린세스

유엽원산의 무늬종
사초로 밝은 느낌
을 준다. 혼합식재
용으로 또는 깔끔
한 무늬로 분화용
으로 매우 좋다.



새로운 귀족 하코네클로아

부식질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비
옥한 토양을 좋아
한다. 그늘지역을
아주 밝게 해주며
하천이나 언뜻가에
심으며 늘어져 흔들리는 모습이 일품이다. 가을단
풍도 매우 아름다운 최고의 그라스이다.



아름다운 가을 햇살에 어울리는 파니쿰



매우 고급스러움
을 연출하는 식물
로 무리를 이루어
식재하면 더욱 좋
습니다.
잎이 단풍이 들고

침입성이 강한 코드그라스

일반적으로 습기
가 많은 지역을 좋
아하여 수변의 생
태습지에 적용하
면 좋다. 아치형을
이루는 긴 잎의 선은 매우 아름답고 대형의 포기
를 형성한다. 주의할점은 침입성이 강해 기타식물
과 혼란하지 않아야 한다. 🍷



대표적인 국화와 식물

들국화 Chrysanthemum



외형

chrysanthemum은 중국 원산으로 추정되나 오래전부터 일본의 품종들이 소개되어 알려 졌다. 정원과 품목리스트들의 장식용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름과 가을의 하이라이 트를 장식한다. 또한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절화용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chrysanthemum은 dendranthema속으로 다시 불려지기도 한다. 외형적으로 4가지로 나뉘는데, "Yellow starlet"같은 한국원산의 종류는 오랫동안 개화가 지속되나 겨울철에 습도가 높은 것을 매우 싫어한다. "Mei Kyo" 종류는 작거나 꽃의 물질을 이루는 털불형 태의 방울술 모양이다. "C.rubellum" 종류는 가장 강건하나 습도가 높은 것을 싫어한다. 마지막으로 "Pennine"종류는 스프레이 형태로 화단, 절화용 모두 잘 어울린다.

- ▶**색:** 색상은 매우 다양하다. 흰색, 크림색, 노란색, 분홍색, 마일라색, 갈색, 짙은 마로 가니색 등이 있다.
- ▶**타입:** 꽃잎의 형태로 분류한다. 거미형, 방울모양, 한국형 스프레이 등이 있다.
- ▶**지시대:** 키가 큰 품종은 지시대가 필요하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대나무 줄기를 사이에 넣는 것이다. 사이 사이에 꽃은 대나무 줄기에 50~60cm 높이로 노끈을 엮는다.

생육조건

- ▶**사면:** 햇빛이 하루종일 잘 들고 강한 바람이 불지 않는 곳 이 가장 좋다.
- ▶**지역:**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넣고 식재하는 것이 좋다. 피복로 밀칭한 뒤에 식재하여야 한다.

재배법

- ▶**개화기:**가 끝난 후에는 지상부에서12~15cm 높이로 식물체 를 잘라준다.
- ▶**증식:** 봄에 새로운 결순을 분주한다. 또는 새롭게 자라난 줄기들을 삽목한다. 일부 품종은 종자를 채취해서 파종한다.
- ▶**비료:** 식물체가 자리잡으면, 매 4~6주 사이에 액비로 시 비한다.
- ▶**병충해:** 나방의 유충에 의해 잎에 흰색 물결무늬나 갈색 줄이 생길 수 있다. 잎을 뒤집어 보면 유충이나 번데기를 볼 수 있다. 문제가 생긴 잎을 즉시 제거하거나, 유충을 제거하 면 된다. 또는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한다. 선충류에 의 해서는 잎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말라죽는다. 곰팡이에 의해 서는 잎에 반점이나, 흰가루병, 녹병 등이 생긴다. 지나친 관 수나 오후 관수를 피한다. 병의 징후가 있는 식물체는 즉시 제거한다.
- ▶**전묘물:**은 세순에 많이 생기므로 손으로 제거하거나 살충제 를 이용한다.



현장에서의 적용



1. 대면적 군식

대개 감국, 산국, 구절초는 사면 등에 군식하면 좋고 데이지 계통은 도로변에 군식하면 좋다.

2. 혼합식재

개량감국은 뿔총식물로 데이지계통은 볼꽃으로 초장에 따라서 중간식물로 식재하면 좋다

3. 암석가든

해변국화는 잎의 질감이 매우 좋아 암석가든의 돌주변에 식재하면 매우 잘 어울리고 감국 골든볼도 키가 작고 땅으로 깔리는 특성이 있 어 가을꽃으로 돌위에 식재하면 돌을 감싸면서 좋은 경관을 연출하게 된다.

아스타의 분류

가을국화계통

우리나라에는 감국과 산국이 있고 우리가 도입한 품목으로 개량감국이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국화를 포함한다. 산국의 경우는 현재 seedspray로 넓은 법면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기도 한데 집초성의 야생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강건한 식물이다. 이와는 유사하지만 꽃이 크고 직립형의 감국은 일반 국화에 더 가깝다. 다만 지역적인 생육형태가 달라 남부지방에 적용된 종류는 개화시기가 늦어 꽃이 피고 난 후 서리 피해가 있거나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서리 피해 를 볼 수 있어 적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량감국은 일반적인 국화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색이 다양하고 6월 말부터 개화를 시작하는 종류를 비롯 아주 다양한 생활형을 가진다. 주목할 만한 품종으로 감국 '골든볼' 이 있다. 골든볼의 생육특성으로는 우선 매우 절간이 짧고 포복성의 성질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화를 왜화제를 처리하지 않아도 불형의 아주 많은 꽃을 볼 수 있다.이 품종은 반드시 삽목에 의해 번식된다.



구절초계통

우리나라의 대표적 들국화로 구절초를 꼽을 수 있는데 한국의 야생화 시 장의 초기에 대대적으로 적용되었던 식물이다. 물론 현재도 매우 많이 적용되는데 구절초는 완전히 성숙된 군집에서는 하고현상이 있어 특별한 관 리를 필요로 한다. 2년을 주기로 분주를 하거나 지하경을 절단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꽃이 육성한 분홍구절초는 잎이 포전구절초와 같이 줄고 절간이 짧으며 줄기가 직립형이라 잘 쓰러지지 않으며 구절초 에 비해 꽃피는 시기가 약 1개월정도 빨라 8월 중순이면 개화하는 분홍색 의 아름다운 꽃이다. 바위구절초나 한라구절초의 경우 생육발달에 의해 재배가 제한적이다.



데이지계통

봄의 전령처럼 잘 자 라고 쉽게 개화하는 사스타데이지계통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도 두 종류로 나누어 진다. 종자에 의한 번식 이 잘 되는 사스타데 이지는 4월말에서 5월에 개화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잎의 질감이 거칠고 길쭉하게 생긴 '실버문' 등과 같은 품종은 6월 중순에 개화하는데 사스타데이지는 줄기가 가늘고 키가 큰 반면에 이들 품종은 줄기가 굵고 튼튼하여 키가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해변국화계통

해변국화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야생화로서 우선 잎이 두껍고 잎 의 뒷면에 하얀털이 밀생하여 아주 고급스 러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품목은 꽃잎이 없는 두상화로써 무수히 많은 꽃대를 한꺼번에 피워낼 때는 벌과 나비의 천국이 된다. 현재 우리꽃에서는 이 해변국화를 가지고 육성해 낸 많은 품종들이 대기하고 있다.



화려함의 최고봉

꽃양귀비



❖ 양귀비는 대면적에 단일종자를 이용하여 화려한 경관연출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현재 지자체, 골프장, 식물원 등에서 봄을 화려하게 수놓는 최고의 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꽃에서 다양한 양귀비 품종을 만나보셔요!!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31)712-7001

가을개화, 최고의 품종군

아스타 시리즈



❖ 우리꽃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아스타를 보유하고 있고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규격도 화분, 포트, 식생매트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31)712-7001

경관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지피식을 뽕만 아니라 관목류도 매우 중요한 소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목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매우 한정되어있다.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경관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관목소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소 관 목 의
새로운 소재

로니세라

라 인 식 물 은 물 론 석 축 메 지 용 으 로 좋 습 니 다 .



로니세라는 전체적인 초형이나 잎의 질감과 색깔면에서 앞으로 매우 유망한 소관목 소재이다. 잎과 키가 모두 작은 관목이며 잎이 조밀하고 작아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며 줄기가 자라는 형태가 일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이색적인 느낌을 동시에 준다.

암석가든에 등과 잘 어울리고 포인트 식물로 독립적으로 쓰여도 좋다. 앞에서 말했듯이 초형도 좋을 뿐만 아니라 품종별로 잎이 황금색을 띠거나 무늬를 가지고 있어 라인이나 경계를 줄 때 라인식물로 적용하면 매우 좋다. 그리고 기존의 조경현장에서 식육메지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철쭉, 회양목 대신에 눈향, 호스타류, 삼색조팝 등과 어울리게 식육메지용으로 활용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는 오히려

철쭉, 회양목보다 가로수림 아래 혹은 공원의 경계화단 등에 많이 심겨진다.

내한성이 강해 원래는 겨울에 상록인 식물이나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상록성의 단풍이 들거나 낙엽이 지기도 하지만 새봄이 되면 밝고 윤기나는 새잎을 띄워 매우 안정적이고 경관을 연출한다. 빨아력이 좋아 회양목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가능하며 일부 관리를 하지 않아도 키작은 좋은 관목상을 이루는 식물이다. 양지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현재 품종으로는 잎의 광택이 뛰어나고 녹색이 좋은 녹색품종과 잎이 진한 황금색을 띄는 품종 그리고 잎의 겉면에 황금색의 무늬를 가진 품종이 있다. 우리의 다양하지 못한 관목시장에 새로운 소재로 주목받을만한 식물이다. ☺



우리꽃과 사람들은 각계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정, 원예, 생태등에 관련된 주제로 자유로운 기고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이다.
- 편집자주 -

육성자 권리의 강화는 국내 종자산업 발전의 시발점!

최 근 진 박사 | 서울대학교 작물육종학박사 | 現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총회 의장 | 現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장



▶우수해외품종을 육종재료로 이용하여 개발된 다양한 토마토 품종들

우리나라는 종자산업법에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후 종자산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일부 작물에 있어서 품종사용료(Royalty)로 인해 육성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이 일어나는 등 일부 부정적인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품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화된 것들을 보면, 우선 국내 및 해외로부터 연간 500여 품종이 국내에 출원됨으로서 국내 제배자나 농민이 이를 활용하여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렇게 출원된 다양한 품종들은 국내 육종가들에 의해 육종재료로 이용됨으로서 장미, 국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새로운 우수한 품종이 조기에 육성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품종들이 육성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능성, 품질, 새로운 물질생산 등 다양한 용도의 품종이 육성되어



▶재배시험을 통한 특성조사 (송원농장 DUS시험, 품종의 관리팀(여부조사))

농업 및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육종가들에게 육성품종의 법적보호가 실시되자 육종가들이 크게 고무되었고 특히, 과수나 화훼 등에서 새로운 육종가들이 많이 등장하여 육종의 기반도 든든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품종육성이 종자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국가나 종자업체에서도 우수 품종육성의 촉진을 통해 종자산업 발전과 나아가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제도정착 및 권리의 집행에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정부에서는 품종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착시키고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10.9.1.발효) 종자산업법에서는 출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출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등록 전 60일간의 출원공고 제도를 삭제하여 품종의 조속한 상업화 및 출원등록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등록 후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해서도 기결정이나 무효의 경우와 같이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두었다.

또한 품종보호권에 대해 권리자간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종자위원회가 제배시점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품종 및 종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인 제배농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을 세분화하였는데 채소는 2년, 벼식은 1개월, 감자·고구마는 2개월, 기타는 1년으로 하였다. 국내에 수입금지국가나 그 국가를 경유한 종자가 국내에 유입됨으로서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큰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출원인 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식물방역법상의 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식물검사항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것을 포함하여 종자유동과정에서 실질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통조사를



▶종자·육종의 유통조사를 통한 품질관리 실태조사

수시로 하거나, 지역별, 계절별 및 작물별로 실시하여 제배자 및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품종보호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권리침해에 대해 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국가가 “품종보호 G-Man”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의심 품종에 대해 현지조사와 제배시험 또는 DNA검정을 통해 침해여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국외로 불법유출된 품종을 이용하여 생산된 산물이 국내로 역수입될 경우 이에 대해 침해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관세법을 개정하여 침해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조사를 통해 수입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두고 있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종육성을 촉진하고 육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봄을 알리는 최고의 아름다움

가을식재.... **추식구근** 추식구근 주문을 받습니다.

품목	화기(월)	화색	키(cm)	식재수/m ²	식재깊이(cm)
튤립	4-5월	혼합	30-50	30-50	10
수선	4-5월	흰·노랑	20-40	25-50	10
무스카리	4-5월	보라	15	120	5
크로커스	3-4월	혼합	10	100	5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31)712-7001,7119

2010 10월 우리꽃은

우리꽃 전시판매장 개장

- * 화분식재로 새롭게 단장
- * 완성형의 규격화분 직접 구매가 가능한 판매장으로서 기능 추가



우리꽃 전시포장이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여 새롭게 단장되었다. 그동안 이천본사 농장내에 일정 구간에 각 품종별로 직접 식재, 관리하며 고객들에게 개방하여 각 식물 개별로 심재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포장을 마련하여 그 식물들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카다목과 같은 홍보물속의 사진으로만 접하는 경우와 작은 규격의(포트)제품을 보아서는 그 식물에 대한 느낌과 특징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시포장을 마련하여 그 속에서 각 식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그동안 조경회사, 설계회사, 관공서 등 많은 조정담당자들이 방문하여 숙근지피식물의 현장적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능을 더욱더 살릴 수 있도록 이번엔 전시포장을 새롭게 조성하였는데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어 좀 더 좋은 상태의 모습과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땅에 심겨져 있던 식물들을 화분에 담아 전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그 식물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으로서의 기능도 추가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꽃이 몇 년 전부터 제기하였던 완성형의 큰 용기재배가 필요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조경은 숙근지피식물 시장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해지면서 원발주치에서 식재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규격의 포트를 가지고는 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식생매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이다. 예전에는 전시포장을 방문한 조정담당자들이 전시포장의 식물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눈으로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전시포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하여 원하는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꽃도 이제는 각 조정현장에 맞게 큰규격의 식물들을 적정하게 이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이번 우리꽃 전시포장의 새로운 변화가 숙근지피식물 시장의 새로운 규격화와 제품의 고급화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천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화훼신품종 보급업무협약 체결”

* 우리꽃은 2010년 9월 30일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와 이천시 “화훼협회”, “우리꽃”간의 화훼 신품종 보급업무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우리꽃에서 개발한 화훼신품종을 관내 화훼재배농가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천시농업기술센터와 화훼협회(회장 정훈남)에서는 재배기술 전수 및 출하량 조절 등 우리꽃과의 협조하여 화훼 신품종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문업체와 관련기관, 단체간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바람직한 상생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 첫 번째로 화훼농가들에게 보급할 품종은 숙근교묘스보계통으로 일본에 수출한 우리드림 시리즈가 될 것이다. 이들 우리드림 시리즈는 현재 미국, 유럽 업체와도 시험재배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천시화훼협회의 정훈남 회장은 “현재 화훼재배농가들이 소비문화와 새로운 작목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에서 개발한 신품종화훼류를 재배하려해도 높은 로열티를 지불해야함으로써 경영비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꽃”에서 개발한 녹화용 신품종들이 분화 및 절화소재로 이용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화훼상품이 제공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화훼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화훼담당자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품종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여 재배하는

현실에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화훼재배농가들의 소득향상은 물론이고 국내 화훼품종 브랜드화를 통한 이미지 향상과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국내 육성품종의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벽화수 LH공사 녹색기술실험관 시공업체로 선정



벽화수가 LH공사가 추진하는 보급자리주택 녹색기술실험관의 벽면녹화와 옥상녹화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옥상공간은 옥상녹화를 전분으로 하는 업체들 간 제품성능을 비교 연구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총 5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벽면녹화의 경우, 벽화수가 단독으로 시공한다. LH공사는 LH출범과 함께 공급되는 보급자리주택 에너지 성능 검증 및 체험

을 통해 보급자리 녹색기술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녹색기술 적용기준을 정립하여 녹색성장정책에 부합되는 보급자리주택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녹색기술실험관을 건립중에 있다.

녹색기술 실험관은 30%에너지절감 녹색기술의 홍보와 주택의 성능체험, 실용기술과 미래기술을 실험, 검증 및 발굴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최고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우수한 녹색기술을 검증하여 널리 알리는 실험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꽃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화훼시장의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의 유명 박람회, 가든센터, 식물원 등을 방문, 소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변화와 트렌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루리가든

Shoulder Hedge
Light Plate
Dark Plate
Seam Boardwalk



루리가든은 2005년도에 Chicago millennium park내에 Gustafson Guthrie Nichol사의 piet oudolf와 robert Israel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

2만㎡(6100평)규모로 정원도시라는 도시의 모토에 정의를 표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루리가든은 "도시속의 활기찬 오아시스", "자연 속의 자연"로 경관디자인과 생태학적인 감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조화하였다.

이른 봄, 추위를 뚫고 태양을 감당하는 구근들과 여러 가지 숙근초가 토양속에서 기지개 펴며 나오기 시작하고, 여름과 가을은 나비와 새들의 군무가 펼쳐진다. 겨울의 다양한 열매들과 그라스의 감성적인 형태가 눈속에서 돋보이며, 예술적인 조각으로 보인다.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루리가든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술로, 시카고의 독특한 문화, 생태, 역사와 사람들을 담아내는 파레트이다.

정원의 하이라이트는 4.5미터 높이의 드라마틱한 생울타리이다. 생울타리안으로 정원의 두 파트가 모두 들어오며, 교란되기 쉬운 정원을 보호한다. 물길로 나누어진 정원의 양쪽을 우아한 나무다리로 건너다닐 수 있다. pannel road는 마치 시골에서 도랑을 따라 걷는 느낌이다.

루리가든은 Shoulder Hedge, Light Plate, Dark Plate, Seam Boardwalk의 4가지 디자인 요소로 나뉜다.

기대한 생울타리 Shoulder Hedge는 정원의 북서쪽을 둘러싼 금속 구조물에 생울타리를 조성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비밀스런 정원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 울타리 너머로 Dark Plate는 화려하고 깊은 톤의 식생이 도시안이라고 믿기 어려운 자연의 초원 식생같이 조성되어 있다. 밝고 붉은 톤의 Light Plate 미래의 깨끗하고 정제된 경관을 알려주는 듯하다.

Seam Boardwalk는 Light Plate와 Dark Plate를 대각선으로 나누며 시카고 경관 발전의 두 시대를 조명한다. 시카고 초기의 저지대 늪지를 표현하였다. 물길 속을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호숫가 얇은 내음을 걷는 소리가 찰박거리며 난다.

Millennium Park내에는 초대형 녹색지붕을 만들어 건강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교목, 관목, 지피류, 숙근초, 일년초들이 자라나 폭우를 저장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열섬효과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묘종,종자 전문회사 우리꽃은 양질의 묘종 및 종자를 대량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꽃은 10만평의 중국 현지생산기지에서 직접 종자를 생산합니다.

우리꽃은 6만평의 국내 생산기지에서도 직접 숙근지피식물을 대량생산하고 있습니다.



▶갈대



▶꽃창포



▶백의다리



▶노루오줌



▶마타리



▶물억새



▶부들



▶부처꽃



▶산국



▶수크령



▶쑥부쟁이



▶억새



▶대단초



▶개연아



▶황금

우리꽃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묘종 및 종자를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4대강도 문제없습니다.

구입문의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상담전화 : 031)712-7001,7119 / Fax. 031)712-7991

우리꽃 따라잡기

이번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경 식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조경 식물을 조경 식재지에 알맞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꽃의 품종을 포함한 12개 조경 식물군의 다양한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11 분주(division)



다육식물에서 발생하는 offset



아이리스, 칸나, 바게나아 등 과근성 식물은 5.6cm로 뿌리를 나눈다



아주가, 프리들라, 매발톱꽃같은 작은 포기나 손으로 나눈다.



호스타 종류와 같은 포기나 손으로 나눈다.



뿌리부분을 나누는 번식법으로 속근초와

관목류에서 많이 이용한다. 속근초나 관목류와 같이 뿌리 부분에서 여러 개의 분얼지가 자라거나 뿌리에 부정이 생겨 총생하는 것을 나누어 증식하는 방법이다. 다년생식물을 증식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2~3년을 1주로 하여 뿌리를 나누어 독립된 식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번식법이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없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잘 정착한 모주의 생장을 크게 교란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또한 분주가 가능한 식물체는 삼목 또한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증식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흙지(sucker)를 분리하는 관목류로서는 조팝나무, 명자나무, 옥매 등과, 속근초에서 사용한다. 속근초의 계절별 적기는 봄에서 초여름에 개화하는 것은 개화 직후나 가을에 좋고 초여름에서 가을에 개화하는 종류는 봄에 분주하는 것이 좋다. 새순이 굳어지지 않은 초여름의 분주는 튼튼한 식물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 때에는 줄기나 잎이 상하기 쉽다. 그러나 여름 분주종으로 아이리스류(꽃진후 6월경), 속근 관목류가 있다.

또한 군생하는 구근성 식물에서 분지를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식물이 휴면 중 일 때 보통 늦은 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절대로 너무 습도가 높거나 서리가 있는 계절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다육성 뿌리식물일 경우에 유식물이 추위로부터 손상받아 고통받을 일이 적을 때인 이른 봄도 좋다.

모식물을 들어올려서 흙에서 뿌리에 붙은 흙을 적당히 털어낸다. 칼이나 산, 가래 등으로 몇 부분으로 나눈다. 나뉜 각각의 부분들이 모두 뿌리를 적당히 나눠 가지고, 몇 개의 새로운 가지와 싹을 가지도록 한다. 오래되고 손상되고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좋지 않은 부분을 제거한다. 두꺼운 뿌리줄기를 가진 식물인 경우, 뿌리 줄기를 자른다. 잘린 부분을 살균제를 바른 후 원래 깊이대로 심는다.

→ Rosette형

Ajuga와 Saxifrage와 같은 로제트형 식물은 쉽게 분주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 분주가 가능하다.

→ Runner형

토양 표면을 따라 퍼지는 런너를 가지는 경우, 이 런너로부터 작은 순이 올라와 자라기 시작한다. 이러한 런너는 토양에 닿는 면이 있으면 바로 뿌리를 뿜는 경향이 있다. 모주로부터 쉽게 새로운 개체를 떼어낼 수 있다.

→ Offset형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모주로부터 겉순이 분리되어 작은 개체로 자라난다. 이러한 식물류는 새로운 개체를 포트에 심기만 하면 된다. 뿌리가 없지만, 포트에 심으면 뿌리가 바로 자라난다.

→ sucker형

흙지는 라일락, 느릅나무, 명자나무 등 관목류에서 발생하는 새 순으로 생장력이 강하다. 낙엽성 식물의 흙지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기 전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생장기에 가능한 한 빨리 떼어내야만 한다.

→ Bulb형

뿌리줄기, 덩이뿌리, 구근류 등은 줄기가 양분저장기관으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휴면의 오랜기간을 거쳐 생산되어 바로 나누거나 인편조각들을 나누어 심는 방법으로 분주한다.

사진 출처 : linegardening.com/